



- 민경갑 작, <자연과의 공존 Harmony with Nature 2000-2>

THEME SPACE 山 / 窓

글. 이순원 소설가

내 추억과 생활 속의 산

어린 시절, 대관령 아랫마을에서 자랐다. 말이 마을이지 깊은 골 안에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동생, 그렇게 두 형제의 집밖에 없는 산촌에서 자랐다.

마을 구경을 하자면 500미터쯤 산길을 따라 내려가야 했다. 그런 산촌의 마을에서 산 속에 파묻혀 자랐다. 지금도 그곳엔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신다. 예전에는 남포불이었고, 지금은 마당의 외등을 끄면 별빛과 달빛 말고는 어떤 불빛도 없다. 오직 깊은 산 그림자뿐이다.

그런데도 그 산이나에게는 한없이 푸근했다. 뒷마루에 쪼그려 앉아 바라보면 멀리 장엄한 자태의 대관령이 바라보이는 곳이었다. 어린 내 눈을 병풍처럼 막아선 대관령이 워낙 웅장하여 내가 가는 산촌은 오히려 평지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어린 시절 등산이라는 게 무언지, 그런 여가생활과 취미활동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의 매일 산에 오르곤 했다. 봄이면 진달래를 꺾으러, 또 어른들을 따라 산나물을 뜯으러 올랐고, 여름이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겹게 소를 몰고 산에 올라가 풀을 뜯겼다.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진 다음의 늦은 가을이면 또 나무를 하는(화목을 하는) 어른들을 돕기 위해 산에 올랐다.

그러면서 나무와 풀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도 나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산에 나는 거의 모든 나무와 풀들을 잎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생김생김으로 구분한다.

어릴 때는 함께 그런 산에 올랐던 소가 친구 같고, 붙잡고 말을 걸었던 나무들과 더덕 도라지 등이 친구 같았는데, 어느덧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모든 것을 기르고 거두는 산이 늘 그 자리에 있어온 내 친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나는 수시로 다른 기분과 다른 모습으로 그를 찾아가지만, 고향에서 나를 맞는 그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감싸 안는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동안 내가 잘 안다고 하면서도 늘 잊고 있었던 산만의 넉넉함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